

[오피니언]

월/요/광/장

박현수



최근 심리학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다. 심리학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체계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학문이다. 대학 시절에 들었던 심리학은 거의 생물학에 가까워 지루했지만, 이번에 읽은 책은 그리 딱딱하지 않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책에 소개된 심리학 이론 가운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흥미로울 법한 이야기가 있었다. 하나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성향을 다룬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실을 부정하려는 경향에 관한 것이다.

먼저 달리와 리타네리는 두 명의 심리학자인 실험을 보자. 이들은 피실험자와 배우 역할을 맡은 두 명이 한 방에서 함께 설문지를 채우도록 한 뒤 인체에 무해한 연기를 흘려 보았다. 피실험자는 연기에 놀라 당황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태연하게 설문지를 계속 채운다. 피실험자는 두 사람의 태도를 보고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연기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는다. 즉 발생하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다

른 사람의 태도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 것이다.

또 인지 균형이론의 하나인 인지 부조화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인지의 모순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인지 부

자의 견해를 갖게 된다. 그런데 심리학 이론에서 유추하면, 자신의 견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여 주위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 정치인을 반대하는 여론이 유동화되거나 그 정치인을 비난할 수 있다. 다수와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여 따돌림을 당하기 싫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정치인을 반대하는 여러 이유를 알 수 있지만, 대개 막연한 주장이거나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면 결국 자신의 입장은 바꾸게 되겠지만, 당초의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이 강할수록 실상을 부정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비리혐의를 반대측의 도움이라고 부정하거나 그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으로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좋게 해석하고,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꺾어버릴 수 있다.

흔히 정치 무관심 시대라고 한다.

사실 정치인들이 환멸을 느끼며 행동하기도 했다. 그래도 정치는 중요하다. 정치권의 결정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을 앞두고 독립적인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정립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의 타당성을 따져 보는 것이 성숙된 시민의 자세다. 심리학 이론들은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을 잘 설명해 줄지 모르지만, 이런 경향을 줄여야 정치와 사회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심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의 계절에 즐음한 단상

조화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가 1957년에 발표한 것인데, 인간은 인지체계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믿음을 반하는 현상에 의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믿음을 바꿀 수 있고, 현상을 부정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다. 이론이란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예언된 날짜에 종말이 오지 않자 자신들의 믿음을 틀렸다고 인정하는 대신, 신께서 예정을 바꾸었다고 주장하는 종말론자들을 들 수 있다.

우리는 현실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반대자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경우가 많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나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친선하거나 반대할 이유를 꼼꼼히 따져보기 보단 정치적 무관심이 이런 경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쳤건 특정 정치인에 대

한 지지 또는 반대의 입장은 결정했다고 하자. 이후에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리학 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반대 증거를 무시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수로는 비단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무더기 해외여행에 보내는 것은 아무리 위로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공짜여행’ ‘효도연수’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겠는가.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의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때문으로는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행정이 선진국에 비해 개선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쌓아야 주민복지가 향상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선진성과 관광성 연수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의 상당수 해외연수가 동남아에 치우치고 유명 관광지를 경유하는 등 연수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결과 보고서도 텁텁로 작성해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고 있지만 일반적 수준에 그

시설

무분별한 공무원 해외연수 이젠 개선해야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때문으로는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행정이 선진국에 비해 개선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쌓아야 주민복지가 향상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행정이 선진국에 비해 개선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쌓아야 주민복지가 향상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선진성과 관광성 연수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의 상당수 해외연수가 동남아에 치우치고 유명 관광지를 경유하는 등 연수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결과 보고서도 텁텁로 작성해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고 있지만 일반적 수준에 그

정부 ‘문화재 관람료’ 마찰 방치만 할 건가

환경운동연합과 문화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불복종에 나섰다.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지만 국립공원 내 19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8일 설악산 신흥사에서 관람료 납부 거부 캠페인을 시작으로 불복종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 정수하였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폐지했다. 국립공원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장료 징수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였다.

하지만 마찰은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국립공원 내 사찰 중 설악산 백암사와 덕유산 백련사·안국사 등 3곳을 제외한 19곳은 사찰 부지를 지나가는 등 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1천 600~3천 원을 받고 있다. 전남의 지역산과 백양사에서도 비비가 끊이지 않는다.

근본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으나 해결될 기미는 없다. 환경부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꾸려 본회의 2차례와 소회의 10여 차례를 가졌지만 사찰측과 입장 차이가 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찰들이 탑방로를 지나간다고 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국립공원 주요 도로에서 관람료를 입찰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통행주’라 할 수 있다. 사찰측은 문화재 유지 및 관리, 탑방로 정비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고 지원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시민단체들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불복종운동으로 갈등의 확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사찰측과 협상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사찰측과 직접 충돌해선 불행한 사태를 빚을 수 있다.

無等鼓

20세기 마지막 날인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전격 사임했다. 러시아는 곧바로 선거 정국에 돌입했다. 선두권은 프리마코프 전수상, 루시코프 모스크바 시장, 주카노프 공산당 위원장이 형성했다. 엘친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른 블라디미르 푸틴 수상의 지지율은 단 2%. 그러나 푸틴은 불과 석달 뒤인 2000년 3월 대선에서 막강한 후보들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푸틴의 대선 전략은

정보기관인 KGB(국

가정보위원회) 출신

답게 전략적이었다.

대통령 대행이란 직책

을 활용해 청진의 수

도 그로즈니를 무력으

로 점령, 체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으로 무명에 가까웠다. 1980년대 동독을 주 무대로 스파이 활동을 했던 푸틴이 지금처럼 장수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1952년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

르크)에서 태어난 푸틴의 운명은 1970년 레닌그라드 대법학부에 입학했을 때

결정이었다. 이 대학 법학부는 KGB와 내무성 관료를 양성하는 곳이었고, 그는 주자 없이 KGB를 선택했다.

냉전이 와해된 1990년 푸틴은 스승이자 레닌그라드 시장직에 오른 아나톨리 소포자크의 정치담당 고문으로 일종의 ‘전업’을 했다. 레닌그라드에서는 푸틴을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막후에서 권력을 조정하는 인물, 즉 ‘하이킹의 초기’으로 불렸다. 이후 그는 레닌그라드 제1부시장을 거쳐 대통령부 제1부장관, 연방보안국 장관, 수상으로 이어지는 출세 코스를 달렸다.

냉전 이후 몰락했던 러시아가 다시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섰다. 그 한복판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석유·가스자본으로 무장한 푸틴이 있다. 푸틴이 파테말리에서 열린 IOC총회에 참석, 자국 어가 아닌 영어로 연설하는 과격을 연출하며 동계올림픽 유치권을 끌었다.

과격은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러시아와 푸틴의 기세가 무섭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k@kwangju.co.kr

사기에 대처하는 자세

읍주운전이나 단순 폭행 사건 등을 제외하면 검사가 가장 흔히 접하는 범죄의 유형은 단연 사기죄라고 할 수 있다.

사기죄 중에서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는 이른바 ‘차용사기’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기에 돈을 투자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투자금 편취’의 사례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어 돈을 빌

었다. 그런데 왜 자기가 빙을 사지 않고 남에게 권유를 하는지, 왜 그와 같은 주식투자의 고수가 국내 굴지의 증권사가 아닌 재래에서 품돈을 만지고 있는지,

당연한 이야기이고, 누가 그런 말을 믿을까 싶은데도 검사실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고소, 고발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속삭이는 목소리가 외면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아지니,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가 자칫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넉넉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평생 걸쳐 마련한 집한 채를, 유일한 노후 보장수단인 퇴직금을 어느 한순간 날려버린 이들이 검사실에 찾아와 한숨짓는 모습을 더 이상은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제각각인 ‘어린이 요금’ 적용 연령 통일시켜야

가족들의 여행이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요금 규정 연령이 구구각색이어서 혼란에 빠지고 당황하는 등 난처한 경우가 많다.

아동들의 각종 요금이 제각각이고 통일돼 있지 않다.

뷔페식당에서는 만 4세 이상의 아동과 함께 공요금은 만 2세부터, 철도요금 6세 이상, 놀이공원 입장료는 만 3세 이상부터 받고 있다.

그리고 고속버스 요금은 미취학 아동은 무료이고 초등학생부터는 할인혜택을 받는

요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각종 요금

징수에 대한 연령기준이 애매하고 통일돼 있지 않아 여객 운임과 유원지 입장료 등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아동들의 각종 요금 적용 연령이 천차만별인 까닭에 아동을 대동한 이용객들과 다른 편이 많고 불편불만의 소리도 높다.

관계당국에서도 어린이 상대 요금 적용 연령을 통일시키고 간편화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우정렬·광주 서구 화정동

어린이 잡곡 혼식 지나치면 오히려 성장 방해

뭐든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엄마들이 자녀 건강을 쟁인다며 아이들에

제각각인 ‘어린이 요금’ 적용 연령 통일시켜야

제각각인 ‘어린이 요금’ 적용 연령 통일시켜야

도 적다.

잡곡 혼식은 어린이 성장과 변비에 도움이 되지만 서너 가지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고 한다. 잡곡에 들어있는 섬유소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섬유소가 너무 과다하면 장내 세균에 의해 가스가 생겨 오히려 장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잡곡밥에만 의존하지 말고 규칙적 식사, 적당히 뛰고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 이선희·광주 서구 마륵동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창립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www.kwangju.co.kr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사·국장/부국장/부국장)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